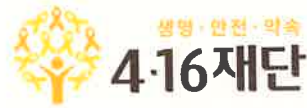


# 2022

## 4·16재단 문화콘텐츠 공모전

장편 극영화 / 다큐멘터리  
시나리오 공모



공모  
장르

장편 극영화/장편 다큐멘터리  
(극장 상영기준 70분 이상)  
OTT, 드라마 등 멀티플랫폼 대응 콘텐츠

일정

- 공고 2022년 3월~6월
- 접수 2022년 6월
- 당선작 발표 2022년 8월
- 시상 2022년 9월

※ 공모전 상세는 추후 공개되며,  
기존에 진행된 내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

4·16재단 문화콘텐츠 공모전  
416foundation.org  
070-4941-3080, 031-405-0416

주최 4·16재단

오시는 길



전철

고잔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1.4km (22분)  
선부역 3번 출구에서 도보로 1.7km (28분)



시내버스

고잔동행정복지센터(도보로 138m)  
97번, 6번

주소 경기 안산시 단원구 단원로 3  
전화 031-405-0416 팩스 031-487-6911

2021년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역대 선정작품 소개 및  
2022년 공모전 안내

## 4·16재단 문화콘텐츠 공모전

장편 극영화/다큐멘터리 시나리오 공모

생명·안전·약속  
4·16재단



2019

극영화부문 대상

## 상실의 궤도

고등학교 수학교사인 미영은 언제부터인가 자신의 방에 틀어박힌 딸 도희를 걱정하며, 밥과 그림 도구와 용돈을 챙기고 집으로 도희의 친구를 부르기도 하는 등 방 밖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 영화는 세월호참사로 인한 상실 이후의 삶을 한 가족의 일상과 교차하는 사건들을 통해 보여준다.

### 이세란 작가

“세상의 슬픔과 울바름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비극이 일어난 곳에는 울음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울음은 언젠가 반드시 통하게 되어있다는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희망이, 나의 작품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가닿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다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극영화부문 입선

## 알지 못한 진실

세월호참사로 아들 현민을 잃은 기철은 아들의 23번째 생일날 책 사이에 숨겨뒀던 일기장을 발견한다. 주저하다 펼쳐본 일기장 안에는 그저 착실한 아이인 줄로만 알았던 아들의 낯선 모습들이 가득하다. 기철은 이제 대학생이 된 현민의 친구들을 만나며 자신이 알지 못했던 아들의 흔적을 찾아간다.

### 윤형철 감독

나에게 있어서 <알지 못한 진실>의 시나리오 작업은

이미 떠나간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은 힘겹지만 그래도 조금은 다가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여망이었다.

창작활동을 하면서 우리는 고통과 마주한다. 영화가 그 고통을 외면한다면 우리 삶에서 영화의 존재 이유는 단순히 오락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다큐멘터리부문 입선

## 머무른 세월, 나의 기억

다큐멘터리의 화자인 프로듀서는 세월호참사 발생 당시 대학생 기자로서 아비규환의 상황이었던 팽목항과 진도 체육관을 취재했다. 다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장소들을 따라가며 사라져가는 흔적과 기억을 되짚고, 세월호참사를 기억하는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질문한다.

### 김명진, 김태영, 최근영 PD

“누군가는 10년, 20년이 지나도 그 공간을 잊지 않기 위해 기록을 이어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재난 기록은 걸음마 단계입니다. 수많은 재난이 잊혀진 이유는 기억의 부재에 따른 기억의 증발이라 생각했습니다. (...) 시간은 흘러가고 그 흔적은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흔적이 없어지는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의 파편을 환기해야만 했습니다. 실존 사건을 집중적으로 기록한다는 다큐멘터리의 본질에 집중하여 오늘의 기억이 우리의 내일을 말할 것이라 굳게 다짐했습니다.” (김명진 PD)



2020

극영화부문 대상

## 아내의 비밀

아들을 잃고 6년, 함께한 추억과 그리움과 미안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던 전업주부 연정은 돌연 남편 진수에게 ‘나의 삶을 살겠다’며 취직을 선언한다. 진수는 갑작스러운 아내의 변화에 당황하는 한편, 부쩍 자주 집을 비우고 하니들 비밀을 만드는 연정의 모습에 혹시나 하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한다.

### 이상훈 감독

“제가 이 작품을 처음 기획하게 된 계기는 우연히 전해들은 얘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의 모임에서는 서로 세월호에 관한 얘기들을 하지 않고 일부러 좋은 얘기, 즐거운 얘기 들을 하려고 노력한다고...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서로를 잘 알기에 함께하는 그 순간만큼은 희망적인 소통으로 서로 위로하고 다독인다는 말이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작품을 통해 유족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2021

대상 (장편 극영화)

## 너를 안고

혼란스러웠던 세월호 사고 수습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민간 잠수사들은 마음과 몸에 큰 상처를 입었지만 국가는 이들을 잊었고, 심지어 동료 잠수사의 죽음에 대한 책임까지 물어 재판까지 받게 한다.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상처를 딛고 일어나 가혹한 운명과 맞서 싸운다.

### 정윤철 감독, 윤순환 제작자

“민간인 잠수사들은 현장에 직접 참여한 당사자인 동시에 객관적인 관찰자이기도 했다.

트라우마란 현장을 수습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남기 마련이다. 그것이 사회적 참사의 본질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모두가 경험한 상처를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정윤철 감독)

입선 (장편 다큐멘터리)

## 애프터 유

연극 <장기자랑>을 만들어나가는 세월호 엄마들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카메라는 세월호 엄마들의 희노애락과 갈등, 화해의 과정을 가까운 거리에서 담아낸다. 피해자의 고통을 부각하는 모습에서 한걸음 벗어나, 현재를 살아가는 가족극단의 모습을 통해 세월호에 관해 이야기한다.

### 이소현 감독, 이보람 PD

“이 공연은 어머니들이 망자와 만나는 통로였다. <장기자랑>을 보면서 연극의 본질, 그리고 당사자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었다. 게다가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연습과 공연에 참가해야만 하는 일종의 강제성에 의지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기도 했다. 이렇게나 아름답고 평화롭게 일어나는 투쟁과 연대가 있다는 것에 많은 감동을 받았다.” (이보람PD)